

7th Story

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

Calming the Storm

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

- 7th Story -



엘 (새) 안녕하세요~!! 저는 엘 이라고 해요.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. 보시다시피 저는 맨날 이리저리 날아다니는게 일이에요... 요 며칠 전에 사람들이 배를 타는 걸 봤어요. 뭐 맨날 보는 일이에요. 이 동네 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갈 때마다 저런 모습이니까요.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. 맨날 볼 수 있는 평범한 고기잡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.

베드로 어이~어서들 와~ 자~ 이제 배를 띄우자. 우리 물고기 좀 잡아볼까?
야고보 좋지~ 오랜만에 실력 좀 발휘해 볼까?

요한 나도 좋아. 완전 기대되는데?

제자들 오케이~가자!

베드로 선생님, 먼저 타세요.

엘 (새) 그 사람들은 한참 동안 멀리 나갔어요. 하지만 곧 날씨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. 저도 날아서 따라가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니까요. 저도 돛대에 앉아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어요.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. 날씨가 진짜 완전 번덕스럽죠? 날씨가 엄청 좋았는데, 갑자기 폭풍이라니 말이에요.

제자들 으아아아아아!!!! 우리 다 죽게 생겼어~~~~

가룟유다 우린 죽었어~~~ 아니아니 우린 살았어~~~ 근데 근데 우린 죽게 생겼어~

안드레 예수님한테 가봐야겠어~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 거야~

도마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어부도 아닌신데?

안드레 그래도 가볼래

도마 그럼 나도 가볼래

안드레 예수님 예수님~!! 도와주세요, 우리가 다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!

예수님 (잠에서 깨며) 하아아아플!! 응 뭐라구?

안드레 지금 진짜 엄청 거센 폭풍이 불어 닥쳤어요. 안 들리세요?

도마 안 느껴지세요?

예수님 (한숨) 왜 그렇게 두려워들 하니? 믿음이 작구나...

안드레, 도마 (어이없다는 듯) 에에?

예수님 와보렴

제자들 으으아아아아아아아아!!

가룟유다 우린 죽었어~~



- 예수님 그만그만!! 제자들아~! 죽이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란다. 바람, 네 이노옴~ 그만하여라!! 바다, 네 이노옴, 그만 넘실대거라!! 다들 멈추어라~!!
- 엘 (새) 그 말씀과 함께, 폭풍이 잠잠해졌어요. 내 말이 맞죠? 장난 아니죠? 이 사람, 아니 아니, 이분은 날씨하고도 얘기를 나누셨고, 게다가 그 날씨가 진짜로 순종했다니까요!!
- 야고보 어... 어머니...
- 빌립 앵...
- 바돌로매 어... 어떻게...
- 시몬 난 알고 있었다니까.
- 도마 니가? 야.. 너 방금 전까지만해도 뭐랬는데? 어?
- 예수님 애들아 근데... 나 돌아가서 좀 더 자도 되겠냐?
- 요한 아아 그럼요... 선생님... 주무시는데 깨워서 죄송해요.
- 야고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알다가도 모르겠어.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?
- 빌립 그러니까 말이야. 사실 나도 해봤거든. 바람아 잔잔하라~ 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? 예수님 진짜 와...
- 바돌로매 장난 아니야 진짜.
- 엘 (새)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방금 본 건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. 비슷한 일도 본 적이 없어요. 그래요, 나도 이분을 따라 갈래요.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, 내가 본 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. 그 뒤로 제자들은 물고기를 좀더 잡았고, 호수 다른 편에 배를 댔답니다.
- 엘 (새) 배가 정박하자마자 갑자기 미치광이 두명이 저 무덤에서 달려나왔어요.
- 미치광이 으아아아아아아아~!!!
- 제자들 으아아아아아아아~!!!
- 예수님 애들아, 좀... 이제 좀 두려워하지 않을 때도 되지 않았니?
- 베드로 그쵸... 뭐 네... 죄송합니다.
- 미치광이 1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~
- 미치광이 2 당신의 시간이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오셨습니까?
- 요한 선생님, 재네 지금 뭐는거예요?
- 예수님 넌 저들에게서 떨어져 있거라.
- 미치광이 1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 떼에 들어 보내 주소서!
- 예수님 가거라



앨 (새)

제가 다 보고 들었잖아요? 저 미치광이 두명이 예수님께 말을 걸었는데,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하나님의 아들이라잖아요! 그건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! 예수님이 가거라~ 하시자마자 미치광이들이 잠잠해지더니 저기 돼지떼들이 갑자기 미쳐 날뛰기 시작했어요. 그러더니 돼지들이 한 마리씩 달려가더니 겁도 없이 막 물속으로 들어갔어요. 이거 정말 완전 이상하지 않아요? 예수님은 제가 봤던 어떤 사람과도 달랐어요. 진짜루요.

예수님

이제 좀 어떠니?

미치광이 1

어... 저는... 흐흑...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주님...

감사합니다.

미치광이 2

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